



산업폐기물 에너지로 재탄생

2009-7-6



앵커멘트

산업폐기물이라도 그냥 태워서 없애기보다는 소각시에 발생하는 열을 잘 이용하면 훌륭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이 에너지로 재탄생하는 현장을, 박수택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더미처럼 쌓인 산업쓰레기가 인천 남동공단에서는 골칫거리였습니다. 폐기물 산은 지금 말끔하게 치워졌습니다. 폐기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기업이 자리잡고 지난 5년 동안 처리한 덕분입니다. 폐기물을 태울 때 나오는 열 에너지는 여기서 고압의 증기로 바뀝니다. 주변의 다른 산업체들이 이 증기를 끌어다 이용합니다. 이웃의 염료 제조업체는 자체 보일러를 꺼놓고도 공장을 돌립니다.



양창규/삼신화성 공장장

“에너지를 공급받기 전에는 약 2천만 원정도 한달에 소요됐었는데요. 공급받고 난 이후로 약 8백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약 2/3정도가 절감된 것 같습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에도 난방 열과 더운 물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소각업체들이 생산한 증기와 온수 에너지는 지난해 200만 기가칼로리로 재작년보다 15% 늘었습니다.

원유로 치면 2억 2천만 리터, 1천4백억 원 어치를 아낀 셈입니다.



윤병선/(주)이알지서비스 대표

“저희 회사같은 전국에 산재해있는 공장들은 에너지 생산시설로서 소규모 유전으로 좀 대접받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 열을 에너지로 살려쓰는 업체는 전국 72곳 가운데 33곳뿐으로 아직 절반도 안 됩니다. 중소기업으로 증기 보일러나 관로 설비 투자가 버거운 탓입니다.



“자원회수시설로서 이용가치를 충분히 보고, 좀더 활성화하고, 확대시키려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버려두면 쓰레기지만 지혜 모아 살려 쓰면 소중한 에너지원입니다.